J. Korean Vet. Med. Ass., Vol. 13, No. 4 (1977)

獸醫學界에 있어서 우리말 찾기 運動과 用語純化作業

張 斗 煥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序 論

學問이 發展과 併行하여 그에 關聯된 語彙도 數가 많아지고 變遷하는 것이 常例이다.

우리나라는 過去에 本意아닌 政策으로 獸醫學이 輸入되었고 그에 따른 用語가 使用되었으며 그러한 過程에서 同一한 말도 딴 表現으로 바뀌게 되었다. 李朝時代에 使用되어 왔던 純粹한 우리말이 빛을 잃고 그늘에 처진 채 버려져 있는 것이다.

어떠한 學問이든지 그 分野의 發展이나 現況을 他分野나 大衆에게 알릴 때에는 항상 그 나름 대로의 正確한 用語에 立脚하여 구사되고 소개되어야 한다. 더욱이나 自體分野內에서도 正確한 語彙를 바르게 使用하여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큰 事典에서 낱말을 종종 찾을 機會가 있어 펼쳐 보면 자연 獸醫學의 用語가 눈에 띠고 그것을 읽게 되면 그 잘못이 마음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用語(우리말)가 있어 반가운 때도 있었다.

한때 英國이 자랑하는 百科事典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잘못 거재되어 國內에서 物議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國內에서 널리 普及되고 있는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수의학 및 그에 關聯된 語彙에 잘못이 있으면 의당 獸醫學界에 從事하는 여러 公人의 잘못으로 보아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各學問分野를 살펴보고 獸醫界를 관망하여 보면 그렇게 뒤떨어진 狀況은 아니나 그렇다고 딴 學問에 比하여 뛰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獸醫界에 몸담고 있는 각 人士들은 이 학문을 널리 대중에게 잘 알려야 할 責任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국어대사전」을 모두 調査하여 獸醫學과 畜産學에 있어서 사용되는 語彙를 調査하게 된 動機는 大衆에게 옳바른 用語를 使用하게 하고 참뜻을 전하는 言語純化運動에 그 뜻이 있었으며 다 같이 옳바르게 쓰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調 査 方 法

한 가지 「국어대사전」에서 獸醫學 및 畜産學의 用語로 使用되어 온 語彙를 발췌하여서 그것들을 잘못 記述되거나 說明이 不充分한 語彙, 古語로서 또는 適當치 못하여서 쓸 수 없는 語彙, 使用하여서 좋으므로 되찾아야할 語彙. 가) 獸醫學의 用語 나) 畜産學의 用語, 歷史的 用語로서 獸醫學史에 쓰여질 語彙…… 등으로 分類하였다.

調 査 內 容

잘못 記述된 것과 說明이 不充分한 語彙 〔 〕 안 기술은 필자의 주

1) 가축검역소(家畜檢疫所)—〔잘못기술〕

2) 가축법정전염병(家畜法定傳染病)—〔내역이 잘못되었음〕〔우역, 광견병, 유행성뇌염, 결핵병, 탄저, 호열자, 페스트 등이 기술되었음〕

3) 가축위생연구소—가축병의 병리, 예방, 치료 기타 가축위생 및 각종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검정, 배포하는 곳

4) 간질(肝蛭)—간충(肝蟲)

5) 간질병(肝蛭病)—간충이 간장에 기생하여 생기는 가축 특히 소나 양의 병. 간장이 비대하여지고 담즙의 위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빈혈, 수종, 복수 등의 증상이 일어남.

6) 개선충(疥癬虫)—〔사람에게만 기생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 되었음〕

7) 개이—개에 기생하는 이의 총칭 〔다음에 *L. piliferus*에 대하여 잘못 기술〕

8) 개촌충—기술이 잘못 되었음 〔*Taenia* pisiformis (豆狀條虫)에 대하여 기술되었음〕

9) 개털이—「Trichodectes canis」〔잘못 기재되었음〕

10) 개파리—「Hippobosca capensis」〔잘못 기재되었음〕

11) 광견병(狂犬病)—〔수의학적 서술이 필요함〕

12) 구두충류(鉤頭虫類)〔기술이 잘못 되었음〕

13) 구역(狗疫)—개가 앓는 돌림병〔확실한 병명〕

14) 구승(狗蠅)—개이파리〔확실한 학명〕

15) 구제역(口蹄疫)—〔설명이 부족함〕

16) 구진(口疹)—소와 말의 교미에 의하여 생기는 생식기병〔다음 기술이 잘못 되었음〕

17) 구충(鉤虫)—〔잘못 기술되었음〕

18) 낭충(囊虫)—〔기술 부족〕

19) 네그리소체(negri小體)—주로 광견병에 걸린 생체의 뇌신경 세포내에 발견되는 소체, 원형, 타원형, 또는 가늘고 긴 소체로서 크기는 2~10 μ 정도이다.

20) 돈단독(豚丹毒)—의 법정 전염병의 하나 돈단독균에 의한 급성패혈증

21) 동물검역(動物檢疫)—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또 병원체를 국외로 내보내어 대외신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물 및 축산물 등의 수출입에 임하여 해항이나 공항에서 검역하는 일

22) 돼지이(haeunatopinus suis)—〔설명이 불충분함〕

23) 마비저(馬鼻疽)—〔기술 부족〕

24) 말개파리(hippobosca equina)—〔잘못 기술됨〕

25) 모낭충(毛囊虫)—〔설명이 너무 길며 불충분함〕

26) 방선균병(放線菌病)—〔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7) 방선상균—〔설명이 필요함〕

28) 벼룩—〔설명 부족〕

29) 새벼룩—〔설명 부족〕

30) 수의(獸醫)—가축의 병을 진찰, 치료하는 의사·〔기술이 부적당함〕

31) 수의사(獸醫師)—수의〔설명이 더 필요함〕

32) 수의학(獸醫學)—가축질병의 치료 및 위생, 사육, 관리, 경영 등에 관한 학문〔잘못 기술되었음〕

33) 수의과대학(獸醫科大學)—단과대학의 하나 수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수의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더 자세한 설명〕

34) 신충(腎虫)—〔설명이 부족〕

35) 신충증(腎虫症)—〔설명이 많고 부족함〕

36) 우슬(牛虱)—진드기〔소의 이〕

37) 우폐역(牛肺疫)—〔새로운 기술의 요망〕

38) 위충(胃虫)—〔설명이 부족〕

39) 위충증(胃虫症)—〔기술이 잘못 됨〕

40) 유비저(類鼻疽)—〔기술이 잘못 됨〕

41) 인공수정(人工受精)—성교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 조작에 의한 수정(略).

42) 탄저균(炭疽菌)—〔설명이 필요함〕

43) 탄저병(炭疽病)—탄저열(炭疽熱) 가축 특히 양이나 소, 말등 초식동물에 발생하는 전염병(略)

44) 피상풍(破傷風)—〔설명 부족〕

45) 폐역(肺疫)—〔기술 부족〕

46) 피비저(皮鼻疽)—마비저

47) 혈반병(血斑病)—〔오기되었음〕

48) 회충증(蛔虫症)—〔사람의 蛔虫症만 기술되었음〕

버려야 할 語彙

1) 계농—양계

2) 계단—닭갈

3) 고력(羖攊)—염소

4) 간충(肝蟲)—간질(*Fasciola hepatica*)

5) 개씹웅두리—소의 웅두리 뼈

6) 남경충(南京虫)—빈대

7) 망충(蛗虫)—등애

8) 목망(木蛗)—등애

9) 문뚝촌충(*Hymenolepis nana*)

10) 벽슬(壁虱)—진드기

11) 우슬(牛虱)—진드기

12) 우의(牛醫)—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13) 우질(牛疾)—우역(牛疫)

14) 장기기생충(臟器寄生虫)—동물의 장기 속에 기생하여 영양을 흡수하는 기생충

15) 축복통(畜腹痛)—거위배

16) 취슬(臭虱)—빈대

잊은 말의 되찾음

가) 수의학에서 使用하여야 하는 用語

1) 감안(疳眼)—헐어서 진무른 눈

2) 건개(乾疥)—마른 옴

3) 건락충(乾酪虫)—오래된 치이즈에 생기는 기생충

4) 건선(乾癬)—마른버짐

5) 견온열(犬溫熱)—디스템파

6) 금두(禽痘)—바이라스에 의한 새의 피부에 좁쌀모양의 두창이 생기는 병

7) 강회—물둘 때 섞여서 나오지 않고 따로 나오는 회충

8) 고독(蠱毒)—뱀, 지네의 독

9) 길마상처—길맛가지에 눌리고 부비어져서 소나 말의 등에 난 상처

10) 도랑이(毛囊虫)—개의 살가죽에 생기는 옴 같은 피부병

11) 불강아지—몸이 바싹 여윈 강아지

12) 둘치—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짐승 둘암소, 둘암캐, 둘암탉, 둘암돼지 등등

13) 비문(鼻紋)—소의 코 근처에 있는 무늬, 사람의 지문과 같이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므로 이것으로 도망친 소를 식별함.

14) 무낭마(無囊馬)—불알을 까 없앤 말

15) 선마(騸馬)—불알을 깐 말

16) 쇠버즘(牛癬)—버즘의 한 가지

17) 악대—불깐 짐승, 거세한 짐승〔악대건(犍), 악대개(犗), 악대양, 악대갈(羯), 악대돈 악대부(豶), 악대소(犍牛), 악대말(騸馬)〕

18) 양두(羊痘)—면양의 두창

19) 정도충(釘倒虫)—장구벌레

20) ① 콧병—코의 병, ② 병아리가 잘 앓는 코의 병

21) 탄저옹(炭疽癰)—탄저병에 걸린 가축의 피부에 생기는 옹저

22) 탈장감돈(脫腸嵌頓)—탈장의 한종류. 소장이 복막 속에 침입하여 장이 꽉 졸려서 환납불능이 되어 장폐색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

23) 퇴마(頹馬)—마술용어. 말이 도중에 갑자기 몸을 움추리고 움직이지 않는 일, 〔참〕내파풍(內破風)—말이 갑자기 죽는 일

24) 풋소—여름에 생풀만 먹고 사는 소. 힘이 적어 부리기가 적당하지 않음. 〔附〕발육이 미숙한 소 예 풋소가죽, 풋소고기(맛이 적음)

25) 피비저(皮鼻疽)—마비저(馬鼻疽)

26) 항정—개, 돼지, 같은 짐승의 목덜미

나) 축산학에서 使用하여야 하는 用語

1) 가라말—털빛이 검은 말

2) 가부(家鳧)—집오리

3) 가용(家茸)—집에서 기른 녹용

4)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5) 가축단위(家畜單位)—가축의 수를 총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단위. 소, 말은 마리당 1, 돼지는 5마리당 1, 양은 10마리당 1, 토끼는 50마리당 1, 가금은 100마리당 1.

6) 개혈(改血)—가축개량을 목적으로 그 체질이 점차 허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연이 먼 것과 교배케하여 체질을 향상시킴

7) 걸귀(乞鬼)—새끼를 낳은 뒤의 암돼지

8) 계내금(鷄內金)—닭의 소화기 속에 있는 빛이 누른 얇은 막

9) 계분백(鷄糞白)—닭똥의 흰 부분

10) 고양(羔羊)—① 어린양 ② 예수크리스트

11) 골경(骨梗 骨鯁)—짐승의 뼈와 생선의 뼈

12) 구슬양피—털이 둥글둥글하고, 곱실곱실하여 구슬모양으로 말리어 오그라든 양털가죽

13) 담수(擔獸)—짐을 실려서 운반시키는 짐승

14) 댓닭—닭의 한종류(途中 略) 성질이 싸움을 즐기므로 투계에 많이 씀 살이 많고 맛도 좋으나 알은 많이 낳지 못함

15) 동계(凍鷄)—내장을 빼고 얼린닭 〔참〕냉육(冷肉)—소, 돼지, 닭고기 등을 찐 다음에 그대로 식힌 고기

16) 목우장(牧牛場)—소를 놓아 기르는 곳

17) 봉시(封豕)—큰 돼지

18) 부계(伏鷄)—알을 품은 닭

19) 북마(北馬)—함북에서 나는 말

20) 생마(生馬)—길들지 아니한 말

21) 소양(小羊)—작은 양(양새끼)

22) 우록(麀鹿)—암사슴

23) 우금(牛禁)—소 잡는 것을 금함

24) 제마(濟馬)—제주도 말

25) 묘아(猫兒)—고양이 새끼

26) 당유—연유(煉乳)

27) 쌀개—털이 짧은 개

28) 유마(乳媽)—젖마

29) 항정—양지머리에 붙을 쇠고기

30) 함양(檻羊)—우리 속의 양

歷史的用語로서 獸醫學史에 쓰여질 語彙

1) 도장관(屠場官)—소의 등수를 정하는 사람

2) 마사(馬事)—② 말에 관한 사무

3) 마사(馬社)—승마술을 창시했다는 사람 또는 그를 제사하는 집

4) 마정(馬政)—말의 사양, 품종개량, 번식, 수출입 등에 관한 국가의 행정

5) 마조(馬祖)—말의 수호신, 방성(房星)의 이칭

6) 마조단(馬祖壇)—방성(房星)을 제사하던 단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는데 이조 태조 때에 설치하였다가 고종 31년에 폐함.

7) 발군(撥軍)—중요한 공문서를 역마를 급히 몰아서 체송하는 군졸

8) 발마(撥馬)—발군이 타는 역마

9) 부신금(副愼禽)—이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종팔품의 잡직의 하나

10) 부신수(副愼獸)—이조 때 장원서의 종구품의 잡직의 하나

11) 사복마(司僕馬)—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하는 말

12) 사복시(司僕寺)—① 고려 때 궁중의 여마(輿馬) 구목(廐牧)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충혈왕 34년에 대복시(大僕寺)를 고친 이름. ② 이조 때 궁중의 여마, 구목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태조 원년에 베풀어 고종 2년에 폐함. 내사복(內司僕)과 외사복(外司僕)이 있었음.

13) 사복이마(司僕理馬)—사복시에서 말의 훈련을 맡아 보는 관원

14) 사축(司畜)—이조 때 사축서(司畜署)의 종육품

15) 사축서(司畜署)—이조 때 잡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세조 12년에 예빈시(禮賓寺)의 한 분장인 분예빈시(分禮賓寺)를 독립시켜 베풀었다가 영조 때에 호조(戶曹)에 붙임

16) 상마학(相馬學)—말의 나이와 성질새 등을 검사하여 그 용도에 관한 감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17) 세마(貰馬)—세를 받고 빌려주는 말

18) 세마계(貰馬契)—말을 세놓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계

19) 쇄마(刷馬)—지방에 배치하였던 관용의 말

20) 쇄마계(刷馬契)—중국에 사신이 갈 때에 방문(方物)과 관계문서를 싣고 갈 말을 바치는 계

21) 수마(手馬)—보병전을 하기 위하여 기마병이 내리고 타지 않은 말

22) 숙마(熟馬)—다 자라서 승용에 알맞는 말

23) 승마대—기병. 포병등과 같이 승마를 필요로 하는 부대

24) 승마학교—말을 타는 법, 기르는 법과 전투 및 그밖의 훈련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25) 우속(牛贖)—우금(牛禁)을 범한 자에게 물리는 벌금

26) 우적(牛籍)—소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기록한 장부

27) 유마(留馬)—마소를 징발하여 사용함

28) 전마(戰馬)—전쟁에 쓰는 말

29) 좌마(坐馬)—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②대장의 부마(副馬)

30) 파발마(擺撥馬)—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는 말. 서울과 의주(義州)의 역참(驛站)에 두었음.

31) 포마(鋪馬)—역말

32) 혼마(魂馬) 반혼의식중의 한 차림 영여(靈輿)앞에 서서 안장을 갖추고 가는 말

論　　議

1. 잘못 記述된 것과 說明이 不充分한 語彙로서 48個의 用語가 있었다.

特히 크게 잘못된 것들 중에서 獸醫學(No. 32)을 보면(가축질병의 치료 및 의생)까지는 좋았으나 다음은 「가축질병의 사육 관리 경영 등에 관한 학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수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멸시당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우슬(牛虱)은 그 漢文의 뜻으로도 「이」라는 意味인데 「진드기」로 둔갑하고 있다. 이와 같이 記述과 설명이 정도가 극히 不足한 것을 발췌하였으므로 「국어대사전」을 펼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버려야 할 語彙 또는 使用을 中止하여야 할 用語가 16가지가 있었다. 特히 「(No. 5) 개씹웅두리」라는 뼈의 이름은 마땅히 廢棄시켜야 할 用語이며 「장기 기생충」이란 用語는 어느 곳에서 잘못 收錄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牛醫」라고 쇠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소침쟁이의 한자표현이었을 것이다.

3. 잊은 말의 되찾음은 언어의 활용을 위하여 또는 溫故知新의 견지에서 좋은 일이라 믿고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을 위하여 獸醫學用語에서 26單語, 畜產用語에서 30單語를 뽑아 모았다. 獸醫學用語에서 「도장이」, 「불강아지」「악대」 등은 좋은 用語이며 畜產學에 있어서는 「가라말」, 「고양」, 「소양」 등은 좋은 말이라 하겠다. 고양이새끼와 양새끼 등에 우리말이 어색하여 필자는 늘 고아지 또는 양아지라고 새로운 말을 늘 使用하였는데 이번에 묘아(猫兒)와 (고양) 또는 (소양)이라는 단자가 있어서 퍽 호못하였다. 쌀개, 유다, 함양, 제마, 우록 등의 좋은 말들이 있으므로 적극 使用을 권장하고 싶은 심정이다.

4. 歷史的 用語로서 獸醫學에서 참고할 用語를 32개를 골랐다. 이 用語들을 현재 使用하려고 발취한 것이 아니라 獸醫學史라는 學門이 우리나라서 系統을 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소나마 獸醫나 畜產에 있어서 過去 어떤 樣相이 개재하여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엿보기 위한 用語인 것이다.

말에 관한 用語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 교통수단으로서 또는 전쟁에서 중요한 동물로 使用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조 때 家畜을 길러 帝王에게 드리는 부서로서 사축서(司畜署)를 두고 있었으나 그 관리자는 잡직으로

천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쇄마계(刷馬契)라는 用語로서 中國에 조공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상마학(相馬學)이나 승마학교(乘馬學校) 등으로 수의학의 태동을 엿볼 수 있다.

結　　論

獸醫界와 畜産界에 있어서 우리말 찾기 運動과 言語純化 作業의 一環으로써 이희승저 「국어대사전」에서 156單語를 拔取하여서 獸醫學用語로서 기술과 說明이 不足한 語彙 48單語는 獸醫界의 各 機關이나 學會가 서둘러서 正確한 記述과 說明을 붙여 出版社(국어대사전)에 보내야 할 것이다.

使用을 中止하든지 또는 버려야 할 語彙 16單語는 誤記된 것은 廢棄하고 使用되지 않는 用語임을 사전에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獸醫學에서 使用이 권장되는 26個單語와 畜産學에서 30個單語는 獸醫界에 널리 알려 적극 그 使用을 권장하여야 하겠다.

歷史性이 있는 用語 32個는 過去의 獸醫學과 畜産의 발자취를 더듬는데 크게 貢獻이 될 것으로 본다.

後記 : 「국어대사전」에서 技取한 用語 중에서 누락된 用語나 또는 그 밖에 獸醫學用語로서 또는 畜産學用語로서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170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두환

(**筆者** : 教授, 獸醫學博士)